

평안도 인물 일화집 『漆翁冷屑』 연구

李恩珠^{*}

- | | |
|-------------------|---------------------|
| I. 서론 | III. 『칠옹냉설』의 내용과 성격 |
| II. 『칠옹냉설』의 자료 개관 | IV.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평안도 인물 일화집 『漆翁冷屑』을 중심으로 자료적 성격과 그 의미를 논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자료는 정병욱 교수 소장본이 유일본이었고, 『서경시화』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필사되었기 때문에 『서경시화』의 일부로 인식되었고 그 맥락 안에서 논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이 시화집의 일부가 아니라 인물 일화로만 구성된 『칠옹냉설』이며 『서경시화』와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자료라는 점을 밝혔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칠옹냉설』을 소개하면서 두 필사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칠옹냉설』의 항목과 수록 인물을 정리하면서 이들이 제기한 서북인 차별의 담론과 그 맥락 위에서 이들이 의미 있게 제시한 인물형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현실이 부당하다는 인식 속에서 이 상황을 돌파할 인물형이 절실했으므로 이 일화집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인물형은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을 가지거나 외부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강인한 인물형이었다. 『칠옹냉설』에 수록된 인물 일화의 관심과 지향은 지역민의 현실 인식과 강하게 결속되어 나타난 것이다.

주제어 : 『漆翁冷屑』, 평안도, 일화집, 평양, 『西京詩話』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I. 서론

평안도의 시화집이자 인물 일화집으로 알려진 『西京詩話』는 정병욱 교수 소장본이 유일하다.¹⁾ 3권과 「補錄」으로 구성된 3권 1책의 필사본이며 편자는 평양 출신인 金漸(1695~1775?)이다. 이 시화집은 1728년에 평양 문인을 중심으로 1차 편찬을 완료한 뒤, 1733년 평안도 문인으로 확대하여 증보 작업을 마쳤다. 『서경시화』는 특정 지역 시화집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자료 소개가 이루어졌고 후속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²⁾ 『서경시화』의 편자인 김점의 구체적인 행적과 이 시화집의 성격은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조금씩 추가 보완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밝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서경시화』의 선행 연구는 지방 시화라는 착안점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다만 여전히 『서경시화』의 구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핵심은 『서경시화』에서 ‘시화’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경시화』는 3권과 「보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필사본에는 「보록」의 중간에 「剛正」으로 시작하는 총 31개의 세부 항목 아래 일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뒤에 다시 「附錄」으로 세부 항목 없이 일화가 추가되어 있다. 이런 체제는 3권과 「보록」 일부가 일관되게 시화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어색하다. 또 「보록」이 있는데 또 「부록」이 붙어있는 점과 「부록」 역시 다시 앞에서 서술된 일화의 연장선이라는 하지만 세부 항목이 없이 서술된 점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는 연구자들은 「보록」 이후의 서술 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부록에 3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화를 수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³⁾ 「부록」을 단서로 「보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

1) 조종업 편, 『(수정증보)한국시화총편』 11, 태학사, 1997 수록.

2) 『서경시화』를 다룬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문희순, 「『서경시화』 연구」, 학산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학산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집 동방고전문학연구』, 태학사, 1990; 장유승, 「『서경시화』 연구-지역문화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36, 한국한문학회, 2005; 조지형, 「『서경시화』의 구성 체제와 문헌적 특성」,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a; 조지형, 「『서경시화』의 편찬 과정과 인용 서목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0, 한민족문화학회, 2020b.

뒤 세부 항목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록」의 후반부로 이해하여 『서경시화』가 시화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야담과 잡록까지 포함시킴으로써 ‘叢話’적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했다.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정병옥 교수 소장본(이하 ‘시화총편 수록본’)은 김점의 『서경시화』에 『漆翁冷屑』을 합편한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에게 이 점이 명확하게 와닿지 못했던 것은 「보록」 부분에서 31개의 항목이 시작할 때 별도의 구분 없이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漆翁冷屑上’과 ‘漆翁冷屑下’가 명시되기는 했어도 이 구절이 「보록」의 마지막 줄 하단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의 제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필사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뒤의 내용이 『서경시화』가 아니라 『칠용냉설』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시화총편 수록본 「보록」 뒷부분의 ‘剛正’부터는 『칠용냉설』의 상편과 하편,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서경시화』의 일부로 인식된 『칠용냉설』이 별개의 자료인 이상, 이 자료는 『서경시화』의 맥락 안에서 ‘시화’에서 ‘총화’로 변모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칠용냉설』은 그동안 『서경시화』 연구 안에서 부가적으로만 논의 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칠용냉설』 자체에 집중하여 이 자료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칠용냉설』의 자료 개관

『칠용냉설』이 『서경시화』와 별개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에 1책의 『칠용냉설』(KO B6B 282, 이하 ‘국편본’)이 소장되어 있다.⁵⁾ 이 책은 조선사편수회에서 1938년에 구입한 자료인데, 시화총편 수록본처럼 항목별로 내용이 서술된 것도 아니며 수록 내용과 순서,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1934년에 간행한 盧元頴의 『平壤大誌』에서도 이 두 책을 별개로 보고 있다. 『평양

3) 장유승, 앞의 논문, 280면.

4) 조지형, 앞의 2020a 논문, 102~105면; 조지형, 앞의 2020b 논문, 146면.

5) 이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알려 주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서울대 규장각 박현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대지』에서는 제10편 제1장 「西京詩話抄」(143~147면)에서 『서경시화』의 일부를, 제14편 「文談」의 후반부에 있는 「附 漆翁冷屑」(217~221면)에서 『칠옹냉설』의 일부를 수록하였다. 이보다 앞선 자료에서도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을 분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張之琬(1806~1867 이후?)이 편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箕城謏聞錄』(古2154-19)은 권4~권6만 남아 있는 낙질본이다. 권4에 鮮于浹, 권5에 田關과 許灌, 권6에 金汝旭, 金志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전거 자료도 명시했다. 『서경시화』와 『칠옹냉설』로 한정지어 보면 『서경시화』는 ‘金進士漸西京詩話’이나 ‘西京詩話’로, 『칠옹냉설』은 ‘漆翁冷屑’로 명기했으므로 이미 이 시기에도 이 두 책을 별개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교정한 黃鍾堯은 장지완이 묘지명을 쓴 黃石耆(1781~1840)의 아들이다. 장지완이 정확히 언제 『기성소문록』을 썼는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1840년에 평안도에 갔고 1846년까지 평안도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1840년경에는 『칠옹냉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시화총편 수록본과 국편본의 수록 내용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국편본은 본문 97항목과 부록 1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종의 『칠옹냉설』은 수록 순서가 비슷하지는 않아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훨씬 더 분량이 긴 시화총편 수록본의 일부를 필사한 것이 국편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도 국편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상의 차이가 있다. 다만 시화총편 수록본이 일화의 내용을 분류하여 항목화했다면 국편본은 인물 중심으로 일화를 수록했기 때문에 두 필사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동일한 일화라도 해도 몇 글자만 다른 경우도 있고 구절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가 어떤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것은 아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을 대략이나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卞叔年壯而不娶，人勸之室則曰，吾二十八當死，忍令寡人之女乎。如期死，死之日，聞骨節砉然有聲曰，吾今換骨矣。俄而仙藥振空異香滿室，人以爲尸解去。 [시화총편 수록본]

卞叔年壯而不娶，人勸之室則曰，吾二十八當死，忍令寡人之女乎。如期死，死之日，仙藥振空異香滿室，士友有相弔者曰，長吉玉樓之歲，果有此乎。 [국편본]

(나)

기산 허관이 열두세 살 때 고을 학교의 생도가 되었는데 재주가 이미 대성해 있었다. 여름날 국을 마시는데 파리가 모여들자 기산이 맹자의 구절을 이렇게 음송하였다. “甕가 불원천리하고 왔지만 어찌 우리 國에 이로움이 있겠는가.”⁶⁾ [시화총편 수록본, 국편본]

(세주: 세상에 ‘파리’를 ‘甕’라고 하고 ‘국’을 ‘國’이라고 하기 때문이다)⁷⁾ [국편본]

(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올 때 청의 진기한 물건을 상당히 가지고 왔으므로 길을 가면서 옮겨 실으라는 전령이 나와 있었는데, 금교의 역리가 말을 구비하지 못해서 처벌을 당하게 생겼다. 기산 허관은 당시 역참의 승이었는데 곧바로 들어가 소리치면서, “저하께서는 조선에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물건을 제가 들겠습니다. 저 중국 물건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어찌 역참의 관원을 번거롭게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역리도 처벌을 받겠다고 청하였다. 동궁이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허관은 정말 독한 자로구나.”⁸⁾ [시화총편 수록본]

기산 허관이 황해 도사로 있을 때 겨울에 관찰사를 따라 관할 구역을 돌았는데 관찰사의 붉은 깃발과 검은 일산이 나부꼈다. 그러자 기산이 예졸들에게 철거하라고 하면서 “눈 위에 일산을 퍼놓으면 어찌 옥교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기필마로 썩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결국 일산을 거두며 말했다. “나는 이 독한 자에게 빌미가 되지 않겠다.”⁹⁾ [국편본]

-
- 6) 시화총편 수록본 『漆翁冷屑』 下, “許箕山灌十二三歲, 補邑庠弟子, 才氣已大成. 常夏月啜羹有青蠅來集, 箕山爲誦孟子句曰, 甕不遠千里而來, 亦將有利吾國乎.”
- 7) 국편본 『漆翁冷屑』, 본문은 시화총편 수록본과 거의 일치하며 ‘氣’가 ‘器’로, ‘常’이 ‘嘗’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세주 “俗謂青蠅爲甕, 謂羹爲國故也.”가 추가되어 있다.
- 8) 시화총편 수록본 『漆翁冷屑』 上, “昭顯世子自瀋還也, 多挾虜奇物, 沿路發傳遞載, 金郊郵吏以馬不俱當刑. 許箕山灌時爲其丞, 直入厲聲曰, 邸下以朝鮮無物乎. 一切行具令臣擔負. 且不辭彼北物, 奚足以煩殘郵臣. 郵吏也, 請受刑. 東宮憮然曰, 許灌眞毒物.”

두 필사본이 차이가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글자가 약간 다른 정도이다. 때로는 (가)처럼 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가)는 변지익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시화총편 수록본에서는 직설적으로 변지익이 죽어서 尸解仙이 되었다고 설명했고, 국편본에서는 당나라 시인 李商隱이 지은 「李長吉小傳」에 나온 ‘長吉玉樓’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상은은 「이장길소전」에서 요절한 시인 李賀(자 長吉)의 죽음을 두고 옥황상제가 白玉樓를 만들어 글을 쓰게 하려고 이하를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국편본에서도 “선약이 공기를 뒤흔들더니 낯선 향기가 방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지만, 사우들은 변지익의 요절을 이하에 빗댄 정도였다. 반면 시화총록 수록본은 앞에 ‘뼈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구절과 변지익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시해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추가함으로써 변지익을 신비한 인물로 변모시켰다.

(나)는 기산 허관의 재능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시화총편 수록본과 국편본은 2글자가 다르기는 해도 내용상 차이가 없다. 세주는 국편본에만 있는데, 이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의 묘미는 허관이 『맹자』의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음송했지만 그 구절이 파리가 물려드는데 국을 마시는 당시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치 있는 행동이 되려면 ‘叟’와 ‘國’에 어떻게 또 다른 의미를 겹쳐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허관은 이것을 한자의 우리말 발음과 최대한 연관시켰다. ‘靑蠅’의 우리말 발음이 ‘쉬’라⁹⁾ ‘쉬’와 유사한 ‘叟’ 발음과 연결시켰고, ‘羹’의 우리말 발음이 ‘국’이라 ‘國’으로 대체하여 썼다.

(다)는 위의 두 예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와 (나)는 표현이 달라도 동일한 일화임이 명확하다. (다)의 두 내용은 관련 없는 별개의 일화일 수도 있지만, 유력자의 과도한 행동으로 하급 관원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허관이 용기 있게 나서면서 유력자의 행동을 저지했다는 서사와 이때 보인 유력자가 모두 허관을 ‘毒物’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관련 인물은 다르지만 동일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변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를 생각해 보면 국편본이 시화총편 수록본에 비해 훨씬 더

9) 국편본 『漆翁冷屑』, “箕山在海上作亞使, 嘗冬月隨巡伯行所部, 巡伯朱幡皂蓋招搖, 然箕山敕隸卒撤去曰, 雪上張蓋, 豈欲陰屋輪耶. 正爲吾單騎馬者設耳. 巡伯亦遂撤其蓋曰, 吾不爲毒物作口實也.”

10) 金弘喆, 『譯語類解補』, 「昆虫補」, “蒼蠅蠅자○쉬”

현실적이다. 이런 서사는 금교 찰방과 소현세자보다는 황해 도사와 관찰사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것이고, 금교 찰방이 소현세자에게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두 자료의 선후 관계는 물론이고 『칠용냉설』의 원본이 어느 것인지, 또는 원본이 따로 있고 이 두 자료 모두 필사자가 임의로 항목을 달았거나 필사 과정에서 내용의 增減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에 관련 자료가 나와서 필사본 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가)나 (다)를 보면 인물의 일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변개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편본이 시화총편 수록본보다는 이른 시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위의 예시를 보면 실제 사건이 구전되면서 익숙한 인물로 가탁되거나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고 그 외에 다른 일화들까지 추가하여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편본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시화총편 수록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편본과 시화총편 수록본의 편찬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고 편자도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두 종의 『칠용냉설』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양대지』는 모두 시화총편 수록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순서도 거의 비슷하므로, 노원경을 비롯한 1930년대 평양 인사들이 본 『칠용냉설』은 시화총편 수록본으로 보인다. 또 네 차례 『칠용냉설』을 인용한¹¹⁾ 『기성소문록』의 경우 이 모두는 시화총편 수록본에서는 확인되나,¹²⁾ 국편본에서는 일부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칠용냉설』에 대해 논의한다면 시화총편 수록본을 대본으로 삼고 국편본을 참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자료 모두 『칠용냉설』의 편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김점의 1733년 서문에서도 ‘문장’만을 언급했고, 다른 자료에서도 『서경시화』를 언급할 때만 ‘김점’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칠용냉설』의 편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11) 허관 관련 내용에서 3곳, 김여옥 관련 내용에서 1곳 나온다.

12) 시화총편 수록본과 비교할 때 원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김여옥에 대한 서술에서 『기성소문록』에서는 “漆翁冷屑云以馬見還且設饌邀金去金不異也亦又醉飽而已”라고 했으나 시화총편 수록본에서는 “以金見還且以爲設饌邀金去金弗異也亦又醉飽而已”로 되어 있다. 원문에서 밑줄 치고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다르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제목에 나온 ‘漆翁’으로 검색하면 19세기 평안도 태천 출신 인물 朴文一(1822~1894)의 『雲菴集』에서 「漆翁金公-志初-文集序」, 「答金漆田-志初」, 「漆田金公-彝叟-挽」을, 朴文五(1835~1899)의 『誠菴集』에서 「答漆田金丈志初」를 찾을 수 있으므로, ‘漆翁’이 金志初(1788~1874, 자 彝叟, 호 漆田, 본관 慶州)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김지초는 문장과 학술에 뛰어난 ‘關西大方家’로 나타나며 『寧邊志』(국도본, 古2779-3-147, 1944년 간행)의 “박학하고 글을 잘 썼으며 많은 저술에 세상에 전해졌다. 먼 곳에서 온 제자가 매우 많았다. 梓里의 崇道院에서 제향한다.”¹³⁾ 언급으로 볼 때, 김지초는 19세기 영변에서 지명도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지초의 문집 『漆田金先生文集』이 북한에서는 전하고 있다고 하나¹⁴⁾ 국내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발굴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편본의 다음 대목을 보면 『칠옹냉설』의 편자는 김지초보다 더 이른 시기의 인물로 보이므로 또 다른 인물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칠옹냉설』 편자를 확정할 때 고려할 단서를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한다.

내 외증조 西亭 田關 공은 재임한 곳에서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보령에서 재직할 때 읍민들이 자랑하면서 “우리 태수는 시도 옥 같고 마음도 옥 같고 얼굴도 옥 같다.”고 자랑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三玉太守’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⁵⁾ (밀줄 인용자)

밀줄 친 이 부분은 시화총편 수록본에는 없다. 필사자가 덧붙였을 가능성이 없지

13) 『寧邊志』, “博學能文, 多著述傳于世. 弟子自遠至者甚衆. 享于梓里崇道院.”

14) 이 문집의 내용을 확인하면 『칠옹냉설』의 편자가 김지초인지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지초에 대해 김삼봉의 논문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김지초의 시문학에 대하여」(『조선어문』 3,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4)가 있다. 김삼봉의 논문을 보면 『칠전김선생문집』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실물 자료를 본 것 같다. 다만 ‘금제후 관료의 길을 포기했다’고 했으나 사마방목이나 문과방목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 언급된 김지초의 행적이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국편본 『漆翁冷屑』, “余外曾祖西亭田公諱關, 所在有水蘖聲. 其爲保寧也, 邑人相矜謂曰, 吾太守詩如玉心如玉顏如玉. 故遂有三玉太守之目.” 이 부분은 시화총편 수록본에서는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다른 부분을 밀줄 치고 진하게 표기하였다. “田西亭關歷典七邑, 所至有水蘖聲. 初嘗得保寧守 邑人相矜謂曰 吾太守詩如玉顏如玉心如玉, 三玉太守之目.”

않겠지만, 『칠옹냉설』의 편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편자를 특정할 단서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田闢(1584~1627)의 외증손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해도 가계를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¹⁶⁾ 전벽은 평양 사람이고 평안도사를 역임했으며 본관이 남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담양 전씨 기록에서도 나온다. 『南原田氏族譜』와 『潭陽田氏世德史』는 전벽 후손의 혼인 관계 기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⁷⁾ 편자가 전벽의 외증손이라고 보면 시기상 김점도 편자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기성소문록』의 전벽 관련 기록의 전거 자료 중에는 ‘文集’과 ‘遺事’도 있어서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전벽의 문집을 보고 내용을 선별했던 것 같다. 그런데 ‘遺事’로만 쓴 부분도 있지만 ‘進士金漸撰遺事’로 쓴 부분도 있어서 전벽과 김점 간의 어떤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칠옹냉설』은 『서경시화』와는 별개의 자료이며, 편자도 김점이 아니라 다른 인물까지 염두에 두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을 뿐 추후 논의를 통해 보강해야 할 것이다. 『칠옹냉설』에 나온 인물들은 성격상 『서경시화』의 수록 인물과 상당히 겹치므로, 일화를 통해 그 인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면 시화집과 일화집은 상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능력 있는 평안도인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서경시화』가 평안도인의 문화적 역량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칠옹냉설』은 이들의 흥미로운 일화를 정리하면서 이들이 또렷한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습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6)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참고할 자료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았지만 소장처 휴관으로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인물을 확정하는 작업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후속 논의에서 보강하려고 한다.

17) 南原田氏宗親會 編, 『南原田氏族譜』, 韓國族譜新聞社, 1997; 潭陽田氏大宗會 編, 『潭陽田氏世德史』, 潭陽田氏大宗會, 1998. 이 두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벽의 아들로 世基와 命基, 서자 禎을 명기했으나 전세기와 전명기의 사위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 『남원전씨족보』에서는 전세기의 첫째는 李興文과, 둘째딸은 金世謙과 혼인했고 전명기의 딸은 金斗紀와 혼인했다고 했으나 『담양전씨세덕사』에서는 첫째딸이 尹有孫과 둘째딸이 康瑄과 혼인했고 전명기의 딸이 김두기와 혼인했다고 나와 있다. 또 『남원전씨족보』에서는 김두기 옆에 “楊州人”이라고 부기했으므로 이럴 경우 김해가 본관인 김점은 논외가 될 것이다. 같은 김씨인 김세겸의 인적 사항도 확인하기 어렵다.

Ⅲ. 『칠용냉설』의 내용과 성격

1. 항목 분류와 수록 내용

시화총편 수록본의 항목 분류와 수록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¹⁸⁾ 이 글에서는 ‘剛正’, ‘鯁直’, ‘節義’, ‘忠烈’, ‘孝行’, ‘友悌’, ‘敦睦’, ‘清廉’, ‘獨行’, ‘將略’, ‘識量’, ‘標致’, ‘宦績’, ‘知微’, ‘學術’, ‘文章’, ‘聰敏’, ‘任放’, ‘諧謔’, ‘傲誕’, ‘義俠’, ‘貪嗇’, ‘迂拙’, ‘勇退’, ‘偃蹇’, ‘寡學’, ‘褒錫’, ‘善徵’, ‘神異’, ‘方技’, ‘梨園’이라는 총 31개의 항목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인물의 일화를 서술할 때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이 자료만의 특징도 아니고, 다양한 일화를 수집한 상태에서 내용을 분류하려고 했다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단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항목에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학술’, ‘문장’처럼 능력에 대한 것도 있고, ‘이원’처럼 직군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또 일화집을 편찬한다고 해서 수집한 자료 모두를 그대로 수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편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정도 밝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칠용냉설』의 항목을 통해 이 일화집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축자적으로만 보면 ‘剛正’, ‘鯁直’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항목들이 꽤 있으므로 항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목 안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자기 지역의 일화를 모은다면 대체로 내세울 만한 미덕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와 함께 당시에 흥미롭게 인식되거나 많이 회자된 내용들도 대거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타 항목에 비해 ‘貪嗇’, ‘迂拙’, ‘偃蹇’, ‘寡學’은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이 항목들을 통해 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항목별로 수록 인물의 비중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점을 정리하여 『칠용냉설』 편자의 관심사와 지향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¹⁹⁾

『칠용냉설』의 각 항목에 실린 내용은 대체로 일관적이다. ‘剛正’에는 “守朴子 金台佐는 풍격이 엄정하였고 악행을 원수 보듯 미워하였다. 사위 중에 행실이 지저분한 자가 있었는데 물리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처럼²⁰⁾ 대체로 평소에 품은 자기

18) 조지형, 앞의 2020a 논문, 102~105면.

19) 조지형의 논문(2020a)에서 항목과 수록 인물, 항목 아래 일화 편수와 인물 수를 표로 정리했다.

20) 『漆翁冷屑』上, “金守朴子台佐, 風局峻正, 疾惡如讐. 其門墻有穢行者, 距之不肯見.” 이하 인용은

신념에 따라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괴이한 물체(黑物)나 夜叉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은 朴薦의 일화도²¹⁾ 외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점에서 함께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鯁直’은 주로 국가사와 관련하여 강직한 태도를 보인 인물들의 일화를 싣고 있다. 예컨대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을 때 가져온 물품이 많아서 짐을 나르느라 관원들이 곤란에 처하자 許灌이 나서서 동궁에게 조선에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짐들을 모두 가져왔느냐 비판하며 자신이 모두 운반할 테니 역참의 관리들의 수고를 덜어달라고 요청하자 소현세자가 무안해했다는 일화를 수록했다.²²⁾ 그러므로 둘 다 강직한 행동을 보인 일화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강정’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경직’은 과거 시험이나 왕세자의 일처럼 국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節義’와 ‘忠烈’은 모두 나라에 대한 충정을 상이한 양상으로 보인 일화를 수록했는데, ‘절의’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자 고려의 유민으로 자처한 趙狷과 호란이 일어났을 때 대명 의리를 고수했던 인물들의 실화를 실었다면,²³⁾ ‘충렬’에는 애국적인 모습이나 임진왜란 등의 전란에서 공을 세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애국적인 모습’에 세상에 무서운 것 없고 다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義州의 土豪 張思吉조차도 태조의 영정을 보고 감복하여 공을 세웠다는 내용과²⁴⁾ 이괄의 난이 평정된 뒤 농공행상을 할 때 친구 金泰屹의 추대로 공신이 된 崔應水の 일화도²⁵⁾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시화총편 수록본을 따랐다.

- 21) 『漆翁冷屑』上, “朴上舍薦嘗夏日行郊野, 忽雷聲訇然一黑物竄入衣袂中, 朴不爲動. 又嘗入亞營作文酒會, 直夜出郭小橋邊, 有一夜叉遮道. 所帶奴倉卒入馬韁底, 朴叱夜叉這漢胡不避, 於是夜叉亦辟.”
- 22) 『漆翁冷屑』上, “昭顯世子自瀋還也, 多挾虜奇物, 沿路發傳遞載. 金郊郵吏以馬不俱當刑. 許箕山灌時爲其丞直入厲聲曰, 邸下以朝鮮無物乎. 一切行具令臣擔負. 且不辭彼北物, 奚足以煩殘郵臣郵吏也, 請受刑. 東宮愀然曰, 許灌眞毒物.”
- 23) 조지형의 논문(2020a, 102~105면)에서는 이 항목에 수록된 인물을 趙狷, 田闢, 許灌으로 정리했지만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에 표시만 했기 때문에 여러 일화가 연속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절의’의 수록 인물로 조견, 전벽, 허관 외에 崔孝一(‘崔孝逸’로 표기), 金禹錫, 咸應秀가 있다.
- 24) 『漆翁冷屑』上, “張僖襄公思吉, 自父儷世爲義州土豪, 強梁不服, 役之日久, 及見聖祖儀容, 不覺屈膝曰, 吾今有主矣. 卒能挾飛龍以御天, 其功不在趙文忠公下.”
- 25) 『漆翁冷屑』上, “崔三和應水逆适平. 朝旨令各言其功, 崔自以功微浚巡未敢發. 金漢豐泰屹爲之推轂得以成名. 當時諺曰, 蒙友力作功臣.”

포함되어 있다. ‘孝行’, ‘友悌’, ‘敦睦’은 각각 부모에 대한 효행, 형제끼리의 우애, 친족 안에서의 친목과 질서에 대한 내용이다.

‘清廉’이 주로 관료의 청렴에 대한 내용이라면, ‘獨行’은 독특하거나 남다른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색을 멀리해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黃胤後나 ‘황고집’이라는 별명이 붙은 黃順承의 사례도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자 땅에 엎드려 보지 않으려 했던 韓禹臣의 어린 시절 일화를²⁶⁾ 포함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將略’이 주로 전투에서의 전략에 대한 내용이라면 ‘識量’은 지혜롭거나 현명한 행동을 모은 것이다. ‘標致’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품모에 대한 내용이고, ‘宦績’은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 善政을 펼쳐 백성들의 신망이 있었다는 내용이며, ‘知微’는 작은 단서로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예견했다는 내용이다. ‘學術’은 학문적 성과에 대한 내용이고 ‘文章’은 시문과 관련된 일화를 모았는데 ‘문장’에서는 그런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화도 있다. 예컨대 金學起의 일화는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 찰밥[稊飯]도 제대로 못 먹는 차별을 당했지만, 부벽루 별사에서 합격하여 노비가 김학기의 아버지에게 “찰밥이 급제했다”고 알렸다는 것이다.²⁷⁾ 물론 부벽루 별사가 평안도민에게 남다르게 외당았을 수는 있었겠지만,²⁸⁾ 이 일화에서 김학기의 문장력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일화는 편자가 수록하고 싶었으나 부합하는 항목을 찾기 어려워 ‘문장’에 편입시켰던 것 같다.

‘聰敏’은 월등한 기억력을 보여준 내용을, ‘任放’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보여준 내용을 수록하였다. ‘諧謔’은 대체로 재치 있게 응수한 내용이며, ‘傲誕’은 오만한 행동으로 낭패를 당하거나 사람들을 골려준 일을 담고 있다. ‘오탄’에는 감영 아전 吳光禮의 여러 일화가 실려 있는데, 감사에게 순종적인 여타 아전과는 달리 당시 감사였던 朴燁에게 응수하거나 가난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고 싶어서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손님을 불러 술상을 차리게 하고는 자기 혼자 술을 다 마신 내용,²⁹⁾ 서울 사람을 속여서 대동강을 팔았던 내용도 있어서³⁰⁾ 다른

26) 『漆翁冷屑』上, “韓靜安髫髻歲適野逢一氓, 與轂棘交即伏地不忍視. 氓愧甚盡力扶起終不動, 及歸而遂秘之. 後臨終舉以與語諸子曰, 吾所以不欲見者一, 知其名沒身不忘, 故忍而至此.”

27) 『漆翁冷屑』上, “金直學學起嘗失愛於其父. 羣弟皆玉食而唯直學飯稊不得備. 諸子數一老奴常左右之. 竟登浮碧樓別試榜出, 父囑老奴以諸郎中誰及第. 奴歸報曰稊飯及第矣.”

28) 부벽루 별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부벽루-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219~225면 참조.

항목에 비해 ‘오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義俠’은 의리나 의협심과 관련된 내용을, ‘貪嗇’은 인색한 성품으로 생긴 일화를, ‘迂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리숙한 행동을 하거나 헛된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수록하였다. ‘勇退’는 벼슬을 하다가 어느 순간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내용이며, ‘偃蹇’은 곤경에 처한 내용이다. ‘寡學’은 학식의 부족으로 생긴 일화이고, ‘褒錫’은 특별히 상을 받은 사례, ‘善徵’은 꿈에서 계시한 내용을 징험했다는 내용이다. ‘神異’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에 관한 내용이고, ‘方技’는 점, 산술, 도사, 풍수, 천문, 의학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일화를, ‘梨園’은 기생의 일화를 실었다.

여기에서 수록 내용이 5편을 넘는 항목만 정리하면 ‘충렬’(9), ‘효행’(9), ‘독행’(10), ‘표치’(7), ‘문장’(14), ‘해학’(13), ‘오탄’(17), ‘신이’(12), ‘방기’(7)이다. 이 분류에서 ‘충렬’, ‘효행’, ‘문장’, ‘해학’처럼 대부분의 일화집에 실릴 만한 내용을 제외하면 ‘독행’, ‘표치’, ‘오탄’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정’, ‘경직’, ‘임방’과도 관련된 내용이다. 곧 『칠옹냉설』에서는 유연하고 순응적인 인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인물들을 대거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다소 부정적인 어감의 ‘오탄’ 수록 일화 몇 가지를 제시한다.

(가) 注書 洪承範은 西河 方希範, 唐岳 崔彦虎와 함께 빼어난 자질로 簡易 崔堧의 위치에 자처하였고 여러 사람들은 이들을 ‘관서 삼호’로 불렀다. 홍승범이 열 몇 살에 두 구를 지었는데, “산대에 사는 참새는 원접사 녀석이라네.”였다. 접빈사로 있는 소세양이 성색에 빠졌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소세양은 매우 언짢아하며 떠났다. 우리 관서인이 청요직에 가지 못하는 재앙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니 길이 막힌 것이다.³¹⁾

29) 『漆翁冷屑』 下, “吳光禮家貧樂飲酒甚益, 其妻不樂也. 間有生面過門子, 光禮因邀之坐定, 旋先入廚囑之曰, 有貴客沽酒來. 妻勉從之. 酒進, 光禮先自酌, 若將侑客者, 繼再飲繼三飲曰酌畢矣. 客拂衣出詬罵不置. 妻問何故則曰, 君勿言, 此客一盃已大醉矣.”

30) 『漆翁冷屑』 下, “吳光禮售庄直於洛人某標曰, 東長林西南狸巖北酒巖. 洛人執驗之乃大同江也.”

31) 『漆翁冷屑』 下, “洪注書承範與西河方希範唐岳崔彦虎, 俱以俊逸, 自位置崔簡易, 諸公目爲關西三虎. 洪甫十餘歲得一聯云, 山臺棲鳥雀, 遠接長兒孫. 蓋爲蘇世讓爲債相以流連聲色而發也. 世讓大噉而去. 吾西枳清之禍端自此路塞.”

(나) 督郵 尹瑛이 한양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재상의 아들과 다투다가 벌거 화를 내며 “이 자식아, 너는 재상인 네 아버지를 믿고 그러는 것이겠지 내 시 상자에는 陶潛의 賦가 있다.”고 욕했다. 윤영의 벼슬길은 이로 인해 마침내 막혔다.³²⁾

(다) 숙종 때 무사 朴振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궁궐에서 벼슬하면서도 마음은 뜻을 펴지 못하여 우울하였다. 마침 내전에 불이 났을 때 衛士들이 모두 진화하려고 하는데 박진영만은 궁궐 담장 밖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박진영이 없으니 어떻게 이 불을 끄지?”라고 소리쳤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박진영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변장에 임명하였다.³³⁾

(가)는 평안도인이 벼슬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³⁴⁾ 이것이 어떤 요인으로 생겨난 것인가를 탐구한 내부인의 답변으로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다. 그런데 (나)에서도 윤영의 벼슬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이유를 재상의 아들과 싸우면서 생긴 개인적 원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곧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와는 별개로, 자기 지역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개인적인 恩怨에서 찾은 것이다. (가)와 (나)가 원한에 대한 것이라면, (다)는 박진영이 변장에 제수된 이유를 개인적인 시혜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곧 박진영은 능력이 있어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이용하여 임금을 속였고 그 결과 변장에 제수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³⁵⁾ 또 (가)에서는 흥승범의 재능과 소세양의 부정한 행동이 대비를 이루었고, (나)에서는 윤영과 다툰 상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적인 복수의 일환으로 윤영의 벼슬길을 막았다고 서술했다.

이들 일화가 ‘오탄’에 분류된 이유는 이들의 기개 있는 행동이 설령 불의에 맞서는

32) 『漆翁冷屑』 下, “尹督郵瑛筮仕在京, 與宰相子, 博爲其爭道, 便揚局呵之曰, 狗兒汝倚乃父作宰相耶, 吾篋中有彭澤一賦耳. 尹之宦途自此遂塞.”

33) 『漆翁冷屑』 下, “當肅宗時有武人朴振英者, 筮仕在輦下, 意鬱鬱不自得. 當值內殿失火, 衛士共撐之, 獨振英在彤牆外往來呼唱云, 朴振英不在, 豈能滅此火. 上聞之以爲振英真能滅火, 特除邊將.”

34)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87~90면 참조.

35) 『승정원일기』 1687년(숙종 13) 12월 25일 기사에 박진영이 牛峴僉使에 제수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양상을 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가)는 『평양속지』에서 “그의 원한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 구의 시어가 백 년간 해를 끼쳤으니 어찌 경실한 문인에게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詩能窮人’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 사람을 곤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도의 사람들을 곤궁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한 예이기도 했다.³⁶⁾ (다)는 포부에 비해 말직에 있다고 울적해 하던 박진영이 변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능력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임금의 어리석음과 부당한 사적 포상의 문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관료 체제가 사적인 이해 관계에 좌우된다는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의 조정이나 관료 체계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깊이 박혀 있으며 계속 확장,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貪嗇’이 지나치게 인색한 거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롭다면, ‘寡學’은 武人, 豪民, 壯士가 무식해서 생겨난 해프닝, 文士인데도 문장력만 있을 뿐 학식이 없어서 관우와 장비가 두 사람인 줄도 몰랐던 이야기를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 그런데 ‘偃蹇’은 과거 시험에서 응시생이 試卷을 위조하고 고쳐 쓸 때 도장을 꺼내 주어 몰래 찍게 했다는 죄로 심문을 받은 예조 좌랑 洪既濟의 일화만으로 항목을 구성했다.

員外 洪既濟가 己卯(1699) 別試의 封彌官이 되었는데 무도한 귀한 집 자제들이 있었다. 홍기제는 처음에는 이들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위협을 받아서 가담했다. 옥사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고 홍기제는 마침내 금고되었다.³⁷⁾

『숙종실록』에서 홍기제 관련 기사는 1700년 1월부터 등장한다. 그런데 홍기제는 처음에는 과거 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심문을 받았으나 1701년 4월이 되면 증거가 없어서 죄상을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웠고 결국 1703년 9월에 석방되었다.³⁸⁾ 이후 관력이 없기 때문에 홍기제의 벼슬길이 끊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 서술은 관찬 자료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관찬 자료에 따르면 홍기제는 무고를

36) 尹游 編, 「文談」, 『平壤續志』 3.

37) 『漆翁冷屑』 下, “洪員外既濟, 己卯別試作封彌官, 有貴家子舞姦者. 洪初欲持之, 爲其所脅而曲拘之. 獄尋作, 洪遂廢錮.”

38) 『숙종실록』 1700년(숙종 26) 1월 17일, 2월 1일, 1701년 4월 20일, 5월 13일, 1703년 9월 18일 기사.

주장했고 결국 ‘증거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위의 일화에서는 무도한 귀한 집 자제들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나와 있다. 평안도인들은 관료가 되기도 어렵지만 설령 된다고 해도 여러 부조리한 외부 상황 때문에 현달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는 핏박의 서사가 여러 일화에 관류하고 있는 것이다.

2. 수록 인물의 성격과 평가

『칠용냉설』은 당시에 전하던 일화를 정리한 내용이므로 성격상 과장하고 윤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로 記名 일화이므로 『칠용냉설』의 수록 인물은 도내에서는 인지도가 있을 것이고 일화의 내용 역시 도내의 평가와 괴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지명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칠용냉설』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칠용냉설』에 수록된 인물들을 정리하고 서술 비중을 확인한 뒤 이 일화집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려고 한다. 각 항목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대략적이거나 등장 횟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횟수별 수록 인물

등장횟수	이름 (시화충편 수록본, 가나다순 정렬, 부록 포함)
1회	康侃, 康儀鳳, 桂雲植, 權瑳, 金寬, 金得振, 金三俊, 金聖猷, 金聖恒, 金安國, 金良彦, 金麗仁, 金禹錫, 金義燁, 金積福, 金振健, 無名氏, 無名氏, 巫山仙, 文壽遠, 文愼幾, 閔聖徽, 朴東樞, 朴蔦, 朴振英, 白雪香, 宣祖, 成居士(張斗成), 孫必大, 安一介, 楊德祿, 楊萬榮, 梁氏, 良悅上人, 魚變甲, (魚持平), 吳振吉, 禹文博, 尹莘喆, 尹之翰, 李廣通, 李贊, 李世載, 李承召, 李應虛, 李齊漢, 李之誠, 李之誠, 李春蘭, 李忠伯, 林慶業, 任義伯, 張思吉, 張世良, 田乃績, 鄭宣, 鄭順雄, 丁應斗, 鄭弘翼, 趙狷, 趙士宗, 趙玄術, 趙賢述, 曹後彬, 朱仁輔, 崔德雯, 崔錫恒, 崔彦虎, 崔應水, 崔震瞻, 崔天興, 崔孝一(崔孝逸), 平壤妓, 河弘, 韓克昌, 咸應秀, 許哲, 許琮, 洪既濟, 洪乃範, 洪僎, 洪承範, 洪益重, 黃應聖
2회	康後說, 具鳳瑞, 金德良, 金泮, 金汝旭, 金智賢, 金台佐, 金學起, 金鐵鋒, 金虎翼, 朴燁, 邊四達, 尹瑛, 李謙, 李景業, 李光漢, 李進, 任義男, 趙浚, 洪慶先
3회	西山大師, 鮮于浹, 李時恒, 鄭鳳壽, 黃胤後
4회	盧警來, 卞之益, 吳光禮, 田闢, 黃順承
5회	金景瑞, 朴大德, 韓禹臣, 許灌
6회	全長福, 黃澄

4회 이상 나오는 사람들을 정리하면 모두 11명이다. 그런데 그중에는 읍지나 관련 기록에서 행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면이 기억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인물도 있고,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어떤 이미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인물도 있다. 예컨대 전장복, 김경서, 박대덕, 한우신, 허관, 전벽, 황순승은 관련 기록도 나오고 어떤 점이 유명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황징, 노경래, 변지익, 오광례는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인물인데도 『칠용냉설』에서 여러 차례 수록하고 있으므로 눈여겨볼 만하다.

全長福(1582~1663, 자 公淑, 호 方山)은 6번으로 『칠용냉설』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 전장복은 1837년에 간행된 『평양속지』 「雜志」와 沈魯崇의 「全長福傳」, 『평양대지』 「인물」에 등장하며, 이들 자료에서는 전장복이 풍랑을 만나 곤경에 빠진 중국 상인 상리병(‘相里炳’ 또는 ‘相里炳’)을 도와주었다가 엄청난 보답을 받은 일화를 특기하고 있다.³⁹⁾ 배포가 크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호인의 면모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식량’(2곳)에서 지혜로움을, ‘지미’(2곳)에서 정의로움을, ‘의협’(2곳)에서 의협심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국편본에만 있는 일화는 평소 전장복에게 위해를 가하던 감사 박엽이 죽자 그래도 전장복은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성난 사람들이 시신을 탈취해가서 여의치 못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상관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부각시키는 점이 눈에 띈다.⁴⁰⁾

金景瑞(1564~1624, 자 聖甫)는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에서 공을 세웠고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 명나라가 원병을 요청하자 출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포로로 있으면서도 적의 상황을 기록하여 고국에 보내려다 처형되었다. 『칠용냉설』의 ‘충렬’(2곳), ‘해학’(1곳), ‘신이’(2곳)는 모두 김경서의 이러한 행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화이다. 전공과 죽음, 길주목사였지만 보수 공사에서 직접 돌을 지고 날랐던 모습, 죽은 뒤의 異蹟은 모두 김경서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자아내는 내용이다.

朴大德(1563~1654, 자 士華, 호 舍江)과 韓禹臣(1556~?, 자 夏卿, 호 靜安堂)은 이 지역의 학식 있는 문인으로 인식되었다. ‘강정’(1곳), ‘독행’(2곳), ‘지미’(1곳), ‘포석’(1곳)에서도 박대덕의 일화는 曠好益의 문인으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병자

39) 심노송의 「전장복전」에 따르면 상리병을 도와줬을 때 전장복은 감영의 泉流庫 別將으로 있었다.

40) 국편본 『漆翁冷屑』, “全長福爲朴燁所忤, 阨危者數矣. 及燁誅死, 長福欲收尸, 竟爲諸仇家所奪. 然人亦以此義之.”

호란 때 공을 세운 내용에 대한 것이다. 한우신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했지만 현달하지 못하여 사직하고 돌아와 독서했던 인물이며, ‘독행’(2곳), ‘표치’(1곳) ‘학술’(1곳), ‘문장’(1곳)에 나오는 일화도 어렸을 때 남다른 면모가 있었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대체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許灌(1599~1660, 자 學圃, 호 箕山)과 田闢(1584~1657, 자 滋野, 호 西亭)은 『기성소문록』에 수록된 인물이다. 둘 다 문과에 급제했고 1638년에 청의 파병 요구에 따라 종사관을 임명할 때 전벽과 허관이 후보에 올랐으나 대명의리를 내세워 거부했다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허관은 ‘경직’(1곳), ‘절의’(1곳), ‘장략’(1곳), ‘문장’(1곳), ‘해학’(1곳)에, 전벽은 ‘강정’(1곳), ‘절의’(1곳), ‘청렴’(1곳), ‘환직’(1곳)에 나오는 데, 모두 병자호란 때의 일과 문장,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의 치적이나 명성에 대한 내용이다.

黃順承(1652~1718, 자 得運, 호 執菴)은 ‘황고집’으로 유명한 인물로 1730년의 『평양속지』와 1892년의 『평양속지』, 『평양대지』에 수록되어 있다. 황순승이 ‘독행’(4곳)에만 실려 있는 것도 그런 이유로,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김정서와 허관, 전벽이 전란과 관련하여, 박대덕과 한우신이 유학자라는 점에서 평안도인에게 자긍심을 갖게 했다면 ‘황고집’ 황순승은 이미 18세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알고 있는 유명인사였고 중국상인 상리병과의 일화로 유명했던 전장복은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더 알려지면서 흥미로운 인물로 부상했는데 『칠용냉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데도 『칠용냉설』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은 편자의 지향점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黃澄(1544~?, 자 應時, 호 菊軒)의 경우 1585년에 진사에 합격한 기록이 있고 과거 기록에는 본관이 삼등현인 평양 거주자 정도만 나와 있다. 또 평안도 도사로 왔던 林梯가 1584년에 지역 문인 5명과 지은 수창시를 『浮碧樓觴詠錄』(규장각 소장, 奎 5260)으로 엮은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면모를 알려 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칠용냉설』에서는 ‘지미’(1곳), ‘해학’(2곳), ‘오탄’(2곳), ‘방기’(1곳)에 수록했는데, 상수학에 밝고 계산에 능한 동시에 돌발 상황에 재치 있게 응수하는 능력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다.

어떤 권세 있는 환관이 황징을 놀리며 말했다. “듣자 하니 (당신) 지방 풍속에 긴 방을 만들어 남녀가 혼숙한다는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황징이 대답했다. “생식기를 잘라 환관을 만듭니다.” 환관이 매우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⁴¹⁾

이 일화는 황징의 대처 능력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환관이 비웃은 것은 상대인 황징이 아니라 평안도 풍속이 비속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듣기로는 남녀가 혼숙하는 풍속이 있다는데 참으로 문란한 것이 아니냐며 비웃는 상대에게 황징은 사실 여부를 따져서 해명하고 납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안도인들은 홍승범이 젊은 치기에 참지 못하고 원접사 소세양을 풍자함으로써 이후 평안도 인사들의 환로를 막았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참고 견디려든가 순응하는 것이 미덕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평안도에 대해 공공연히 비난하는 중앙 관료들의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촌철살인으로 응수하거나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인물을 도내에서는 각별한 존재로 인식했다.

‘경직’(1곳), ‘우제’(1곳), ‘표치’(1곳), ‘임방’(1곳)에 나오는 盧警來(1639~?, 자勉進, 호 槐軒)도 그런 인물이었다. 지나칠 정도의 우애, 남다른 옷차림, 처음부터 학업에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長歌와 短歌를 익히다 어느 시점에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에 전심한 행적처럼 노경래는 대체로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인물로 나오는데, ‘경직’에서는 평안도 풍속을 무시하는 조정 관료를 강하게 비판한 일화를 제시했다.

숙종 기유년 조정의 신하 李禎이 성천 부사로 향시 시험관으로 참여하였다가 여러 선비들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 심하자 우리 관서의 풍속이 금수나 오랑캐와 같다고 비난하고 정거하였다. 괴헌 노경래가 손에 침을 뱉으며 “내가 늙지 않았다면 물여우와 쇠뇌가 되어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抗章을 올려 이정이 간사하고 무도한 말로 임금을 속였다고 비판하였기에 이정을 언관에서 파직시키고 유배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寢郎 李萬秋가 呂必禧를 탄핵한

41) 『漆翁冷屑』 下, “有巨璫嘲黃菊軒曰, 聞鄉俗作長房男女混處. 若麀聚生子則如何. 菊軒曰, 唯有割腎作黃門耳. 璫默然甚愧.”

일과 같다.⁴²⁾

『승정원일기』에서는 1693년 기사에서 발견되므로⁴³⁾ 원문의 ‘기유년’은 ‘계유년’의 오키일 것이다. 이정은 평안도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 일은 평안도인의 반발을 불러 결국 이정이 파직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실록 기사에는 평안도 유생들이 항장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간원에서 이정을 두둔해서 평안도 사람들의 원망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⁴⁴⁾ 이 일화의 위와 끝부분에는 추가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하나는 중종대에 원접사가 무고해서 평안도가 정거당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대 암행어사 여필희가 평안도 풍속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의 논리 속에서는 원접사 소세양과의 사건으로 평안도 인사의 청요직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평안도를 비하하는 중앙 관료의 발언이 더해진 셈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비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황징과 노경래가 특히 조명되고 이들의 비범한 면모와 재능이 높게 평가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인물에게 호감을 가진 것도 당연했다.

물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卞之益(1607~?, 자 叔謙, 호 晩翠)이었다. 변지익은 ‘문장’(1곳), ‘충민’(1곳), ‘임방’(1곳), ‘신이’(1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그의 마지막과 관련하여 ‘신이’에 수록된 내용이다.

변숙(변지익)이 장성해서도 장가를 들지 않아 사람들이 아내를 맞으라고 권하자 “나는 스물여덟이면 죽을 텐데 어찌 남의 딸을 과부로 만들겠습니까.”라

42) 『漆翁冷屑』上, “肅廟己酉有朝士李禎, 以成都太守參考鄉試, 嘆多士之侵已屹吾西風俗有禽狄等停舉. 盧槐軒警來唾手曰, 吾不爲老賊飲弩矢, 卽抗章斥禎大姦猾誣上不道. 得旨禎特罷言職, 至於流配. 近李寢郎萬秋彈呂必禧事同.”

43) 『승정원일기』 숙종 19년(1693) 8월 4일 기사; 숙종 20년(1694) 5월 13일 기사.

44)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5월 13일 기사.

고 하였는데 마치 죽음을 예견하는 것 같았다. 죽는 날 뼈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는 이제 환골하였다.”고 하였다. 잠시 후 선약이 공기를 뒤흔들더니 낯선 향기가 방에 가득해서 사람들은 그가 尸解仙이 되어 떠났다고 여겼다.⁴⁵⁾

‘神異’ 자체는 1892년의 『평양속지』까지 평양 읍지에서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던 항목이었고, 『평양대지』에서는 「古事傳說」에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다만 읍지에 수록된 ‘신이’ 항목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칠웅냉설』은 인물 일화집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겪거나 신비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36년에 간행된 張道斌(1888~1963)의 『平壤誌』에 따르면 변지익은 재능이 뛰어나 신동이라고 불렸고 7세 때 중국 사신 앞에서 시를 지어 천재성을 증명했으며 ‘朝鮮乘이라는 朝鮮歷史를 撰하였고 治國經邦策을 지어 仁祖大王께 올니니 仁祖 | 優答을 賜하였’던⁴⁶⁾ 인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조가 재주를 인정하고 특별히 녹용하라고 했던 인물이 28세로 요절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미완의 대기로 남게 되었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변지익은 죽은 것이 아니라 尸解仙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생겨났을 것이다.

자기 지역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비단 평안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관료로 현달한 지역민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도 체감되는 여러 상황들을 ‘서북인 차별’로 공론화했다. 평안도인이 자기 지역의 인물 일화를 정리할 때도 이런 의식은 공고하게 바탕을 이루었다.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관료 체제는 공정하지 못해서 도내의 출중한 사람들은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요행히 변지익처럼 특별히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일찍 죽음으로써 결국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에 부단히 저항하거나 뛰어넘는 자질이 긍정되었다. 이것은 오광례의 일화가 4건이나 실린 이유이기도 하다. 오광례는 사실 긍정적인 인물형은 아니다. 감사 박엽의 음식을 담당하면서 탄 쇠고기 구이를 올려

45) 『漆翁冷屑』 下, “卞叔年壯而不娶, 人勸之室則曰, 吾二十八當死, 忍令寡人之女乎. 如期死, 死之日, 聞骨節砉然有聲曰, 吾今換骨矣. 俄而仙藥振空異香滿室, 人以爲尸解去.”

46) 『인조실록』에서 변지익에 대한 내용을 2차례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626년 3월 20일 기사로, 아버지 변학의 문과급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이었는데 예조의 반대 의견으로 이바람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1630년 9월 15일 기사로, 치안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인조가 칭찬하고 녹용하도록 전교한 내용이다.

너무 불에 가깝게 구웠다고 꾸지람을 듣자 그 다음에는 익히지 않은 쇠고기를 바친다. 박엽이 꾸짖자 불에서 좀 떨어져 구우라는 말을 받들어 대성산의 불을 바라보며 멀리서 구웠노라고 응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물에 가깝다. 집을 판다고 속여 서울 사람에게 대동강을 팔아 버린 일화를 보면 정직하거나 성실한 인물형도 아니다. 그럼에도 오광례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찰사나 ‘서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이다. 하급 관료로 있지만 평안 감사를 난감하게 하는 이런 인물형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오광례에게서 ‘차별받지만 굴하지 않는’ 평안도인의 모습을 읽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칠용냉설』을 중심으로 자료적 성격과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사회총편 수록본은 『서경시화』를 일부로 인식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이 부분이 인물 일화집인 『칠용냉설』이며 『서경시화』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논의할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글에서는 두 필사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부분적이거나 논의했고 편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해서 추후 관련 자료가 나올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칠용냉설』의 항목과 수록 인물을 정리하면서 서북인 차별의 담론과 그 연장선상에서 의미 있게 제시한 인물형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부당한 현실에서 재기 있게 응수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일화집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는 고집스럽고도 강직한 강인하고 인물형이었다. 이러한 인물 일화의 관심과 지향은 지역민의 현실 인식과 강하게 결속되어 나타난 것이다.

투고일: 2020.07.30

심사일: 2020.08.24

게재확정일: 2020.09.07

참고문헌

- 『寧邊志』(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779-3-147)
尹游 編, 『平壤續志』
盧元頴 撰, 『平壤大誌』, 平壤: 衛生彙報社, 1934
『西京詩話』, 조종업 편, 『(수정증보)한국시화총편』 11, 태학사, 1997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仁祖實錄』
『漆翁冷屑』(국사편찬위원회 소장, KO B6B 282)
- 문희순, 「『서경시화』 연구」, 학산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학산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집 동방고전문학연구』, 태학사, 1990
장유승, 「『서경시화』 연구-지역문학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부벽루-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조지형, 「『서경시화』의 구성 체제와 문헌적 특성」,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0a
조지형, 「『서경시화』의 편찬 과정과 인용 서목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0, 한민족문화학회, 2020b

A Study on *Chilongnaengseol* a Collection of Pyeongan-do People' anecdotes

Yi, Eun-ju

This thesis discusses the character of material and its meaning, focusing on *Chilongnaengseol* the collection of anecdotes of people in Pyongan province. Until now, this part was recognized as a part of *Seogyeongsihwa* and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because Professor Jeong Byeong-wook's collection was the only one, and it was transcribed without quite distinct from *Seogyeongsihwa*. In this paper, it was revealed that this part is not a part of comments on poems, but a collection of anecdotes of characters, and is a material that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Seogyeongsihwa*. In addition, while introducing *Chilongnaengseol*,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nuscripts were also partially discussed.

In this article, while arranging the items and the characters in *Chilongnaengseol*, we discussed the discours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in Pyongan provi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gures that they presented meaningfully in the context. In the perception that reality was unfair, a figure type to break through this situation was desperate, so the figure type presented as important in this anecdote has a strong character that does not give in to the surrounding situation or is a strong person who can strongly resist external situations. The interest and intention of the character anecdotes contained in *Chilongnaengseol* was strongly tied to the local people's perception of reality.

Key Words : *Chilongnaengseol*, Pyongan province, an anecdotage, Pyongyang,
Seogyeongsihwa